

# ‘박영선 파동’ 수습국면... 새정치 ‘헌정치’ 벗어날까

### 리더십 부재·계파갈등

### 제1야당 민낯 드러내

### 세월호법 등 현안 산적

### 위기극복 어려움 클 듯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회(비상대책위원회) 겸 원내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최고조로 치닫던 당내 내홍과 리더십 공백 사태는 일단 수습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리더십 부재, 계파 갈등 등 제1야당의 참담한 민낯이 드러난데다 비대위원장 선임, 원내대표 사퇴 시한, 세월호 특별법 협상, 정기국회 의사 일정 참여 여부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새정치연합의 위기 극복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새정치연합에 놓인 과제는 비대위원장 선임이다.

하지만 당내 의견이 모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계파에 따라 친노계는 문희상 의원을, 정세균계는 박병석 의원을, 김한길계 및 중도파 의원들은 이석현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호하는 상황이다.

각 계파들이 지지하는 인물들이 갈려진 상황에서 만족할만한 인선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칫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비대위원장 선임을 놓고 또 다른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계파 간의 입장 조율로 비대위원장이 선임된다면 비대위원 선임도 계파 안배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과감한 기득권 포기 등 혁신책 마련은 쉽

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난제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무회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하지만, 이미 두 번의 합의안이 파기된 마당에 새누리당 측이 박 원내대표의 ‘대표성’을 문제 삼을 경우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시한부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2차 합의안 이상의 추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별써부터 당내 일각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제3의 협상안을 만들어 내기는 동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의 사퇴 시기도 갈등의 요인이 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당내 강경파들의 사퇴 요구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

문이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가 다시 충돌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박 원내대표의 당무 복귀로 새정치연합의 내홍은 수습 국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리더십과 신뢰의 구조가 무너진 상태”라며 “붕괴 국면으로 당분간 가겠지만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다시 갈등과 분열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수사권 거부’ 박대통령 규탄

세월호 참사 광주 시민대책위원회가 17일 광주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수사·기소권 요구 거부’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새정치 비대위원장 하마평

### 박지원·문희상

### 이석현·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당은 본격적으로 새 비대위원장 물색에 나서고 있다.

현재로서 내부의 중진 의원이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당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당 분란을 수습하기 위해 관리형·안정형이 추구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근거로 물망에 오른 내부 인사는 박지원·문희상·이석현·박병석 의원 등이다.

박지원 의원은 비대위원장직보다는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당 상황 상 지금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 어려움 만큼 당의 어른으로서 또 호남의 대표적 정치인으로서 나서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17일 라디오에서 “박지원 의원이 당권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대선 패배 직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을 추슬렀던 문희상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친노 원로그룹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강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문 의원을 다시 추대하려는 기류가 있다.

정세균계에선 19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박병석 의원을 밀고 있다. 후반기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석현 의원은 김한길계와 중도파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계파 색도 뚜렷하지 않은 게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조국정 사무총장은 이날 “박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예정된) 전·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상임고문단 회의를 통해 비대위 구성 방식의 취지를 설명하고 (추천 인물에 대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이후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더 험해진 세월호법 협상

### 黨·靑 “재합의안이 마지노선” 선언에 野 강한 반발

### 경색국국 풀릴 가능성 희박...이재오 “쪼박 깨지 말라”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17일 공식 시작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는 여전히 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시동을 걸 예정이었던 국회 상임위원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장 단독 국회를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보고 상임위 개최 요구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정기국회 공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회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의사일정 참여를 압박했다. 반면 우원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당적자들은 이날 정 의장을 찾아가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할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다시 여야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탈당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무에 복귀, 원내대책을 논의 중이나 당장 정기국회 활동에 들어가기보다 여당과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 검색 정국이 당장 풀릴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특히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회동을 통해 여야의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음을 선언한 것은 앞으로 세월호법 협상이 이전보다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이 같은 약재들은 자칫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른 의사일정은 커녕 예산 심의마저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비주류의 만행적인 이재오 의원이 이날 최근 여론의 행보를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에 대해 “야당이 꼬이면 여당이 풀어야 하고, 여당이 꼬이면 청와대가 풀어야 한다”며 “출구를 열어주는 정치를 해야지, 출구를 있는 대로 탁탁 틀어막아 버리면 결국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법 협상에 대해 “동남은 못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정치권의 여야 간 (관계)에 맞는 말”이라며 “야당의 협상 주체가 나올 때까지 여당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오면 다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여당다운 태도”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금태섭 “조사위 수사권·기소권에 목매지 말자”

### 수사권 있어도 대통령 행보 못밝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금태섭 전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부분에 당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금 전 대변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포함)을 부여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며 “수사권을 부여해도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이나 우리 사회 문제점을 규명하는 데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상당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없는 것들로, 대표적 예가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라며 “대통령이 참사 이후 7시간 동안 제대로 된

보고를 받거나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서 범주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려고 청와대 경호실에 자료를 요청하면 심증팔구 거부할 것”이라며 “진상조사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이는 범위를 수사하기 위해서만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이 발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 전 대변인은 “수사권 부여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마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만 부여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됐고, 진상규명 ‘수단’에 불과한 수사권 부여가 쟁점이 되면서 ‘진상규명’의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 등) 망신주기가 목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기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고심의일 2012-10-18-1326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들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동구청 남광주농협 소리큐보청기  
구도청 일남로 화순  
남광주농협 소리큐보청기 천변로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